

치 사

법보신문의 독립 언론 10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청아한 풍경소리와 같이 마음을 울리는 감동에서부터 때에 따라서는 엄중한 죽비 역할을 하기까지, 주저함이 없었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더불어 기사 한줄한줄을 애독해 주신 전국의 불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법보신문의 지난 10년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공익적 가치의 구현’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 종단이 추구하는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사부대중 공동체’, ‘불교중흥을 위한 지속적 종단혁신’을 실천하는데 법보신문의 정론을 향한 노력이 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보신문은 조계종의 원로대덕이자 선지식이셨던 불국사 월산스님께서 1988년 5월 창간한 불교계 대표 언론입니다. 독립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법보신문은 독립 이후 임직원 모두 하나가 되어 부처님의 법을 널리 흥포하는 전법사로서, 부정과 불의에 맞서 파사현정을 구현하는 정론지로서, 소외 이웃과 이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나눔 공동체로서의 역할에 혼신의 열정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진실을 보도해 온 정론의 힘은 그 누구에게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접근하여, 불교계가 기대하고 현시대가 요구하는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정론을 향한 필봉은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었습니다. 종단과 총무원의 정책실현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비판할 수 있는 언론, 바람직한 부분은 더욱 의미를 부여해 종단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언론, 불자들의 긍정적인 신행문화를 선도하는 포교지로서의 사명에 진력해 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법보신문의 정론을 향한 열정과 진실보도는 언제나 사부대중의 공감을 이끌어 냈으며,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여 이끌고 불자와 사회 저변에 뚜렷한 불교계 언론으로 인정받으며 자긍심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公器)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밝히고 정화하는 공기로서의 역할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부대중 모두의 관심과 애정을 언제나처럼 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보신문의 독립 10주년을 거듭 축하하며, 법보시의 공덕을 쌓아가는 앞날에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59년 10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